

전세계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

지난호까지 Internet Assistant For Word와 Frontpage97를 이용한 손쉬운 홈페이지 제작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는 독자들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전세계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황희정 / 넥스텔 멀티미디어연구소 팀장

로컬에서 서버로

그림 1은 넷스케이프 메뉴의 File -> Open file을 통해 읽은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이 홈페이지는 겉으로는 완벽한 홈페이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홈페이지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개인의 컴퓨터 한 대에서만 볼 수 있다. 이처럼 혼자서만 사용하는 사용자 개인의 PC를 로컬(Local)이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각양각색의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제작한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버(Internet Server)'에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서버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버에 사용자의 홈페이지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서버에 사용자 계정이란 것이 있어야 한다. 계정이란 해당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디스크 공간, 그리고 전자우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 계정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흔히들 이용하는 PPP/SLIP 등과는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서비스회사의 안내자료나 고객센터원부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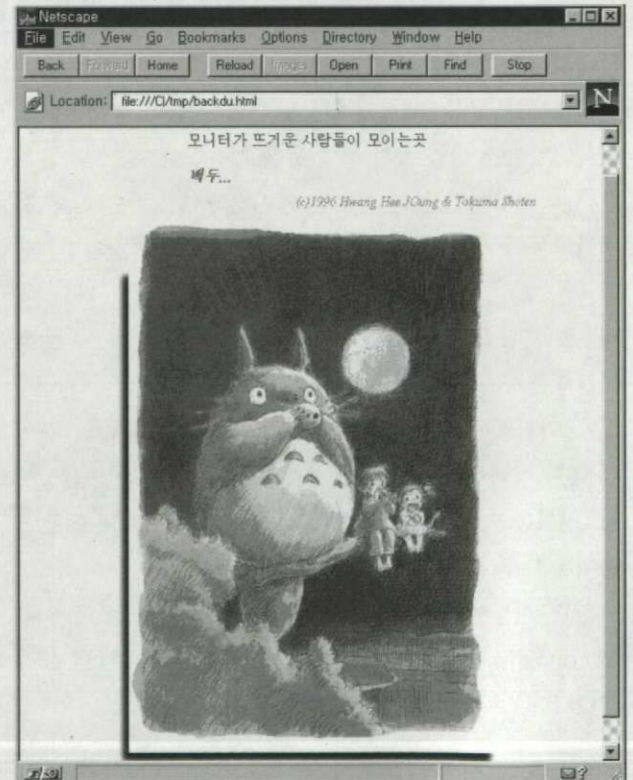
사전준비

인터넷 서버에 계정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각자의

PC에 있는 홈페이지 자료를 해당 서버로 전송해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사용자 ID와 암호를 확인한다.
- 서버의 주소를 확인한다 (예 : www.uriel.net / bora.dacom.c o.kr)

〈그림 1〉 file open으로 홈페이지를 읽은 모습



-개인사용자의 홈페이지 디렉토리를 확인한다.

-PC용 파일전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물론 사용자의 ID와 암호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잘 알아서 하리라 믿고 개인사용자의 홈페이지 디렉토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한다.

개인사용자의 홈페이지 디렉토리 확인

개인사용자의 홈페이지 디렉토리란 사용하는 서버에서 개인사용자의 홈페이지를 <http://www.uriel.net/~hw-anghj>와 같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되는 디렉토리인데, 이는 각 서비스 제공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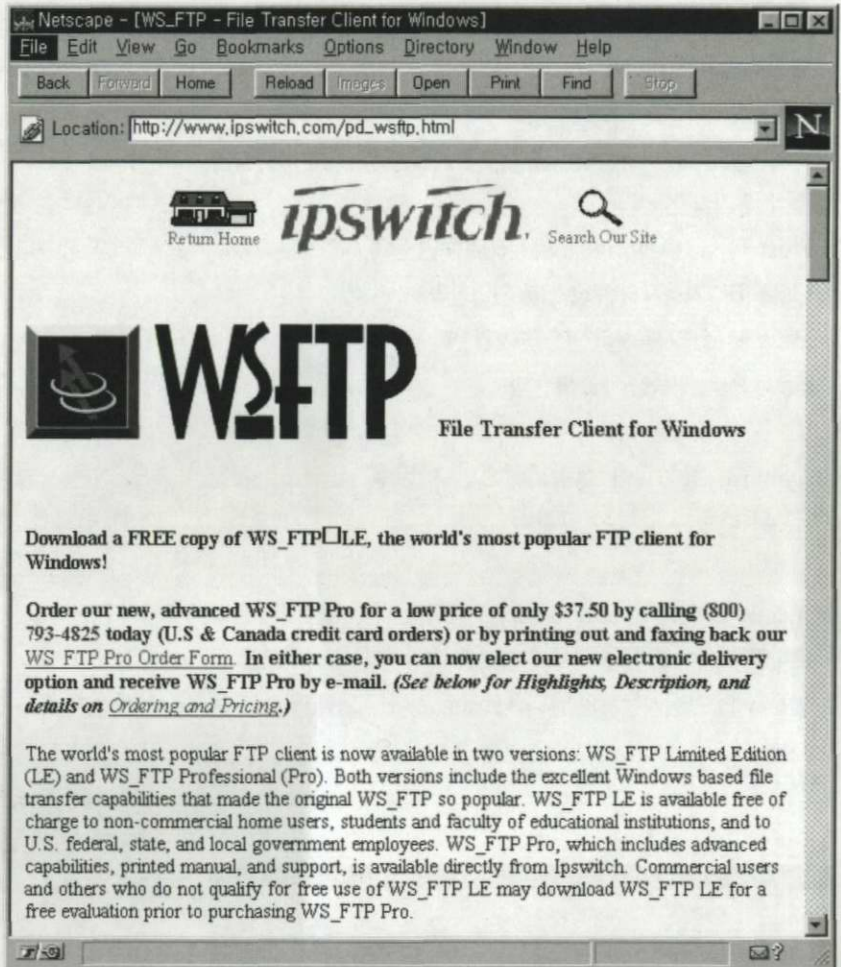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는 public_html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default_html, web_home 등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각 서비스업체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직접 서버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서버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파일전송 '작전개시'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제작한 홈페이지 자료들을 서버로 전송하는 일만 남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자의 PC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하이텔이나 천리안에서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전송할 때 이야기같은 통신용 프로그램과 Z모뎀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서는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이용하여 파일을 주고 받는다. 대부분의 PC용 파일전송 프로그램은 공개되어 있으며 경우에



〈그림 2〉 ws_ftp를 다운로드한 site

따라서는 넷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전송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 WS_FTP를 이용하는 방법

WS_FTP는 윈도우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으로 www.shareware.com이나 국내 통신망 ftp.nuri.net 등의 공개 FTP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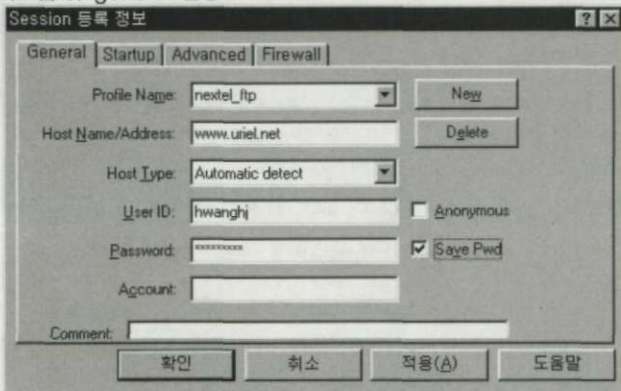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적당한 디렉토리에 다운받은 뒤 ws_ftp95.exe를 실행시키면 된다. 맨처음엔 라이선스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이 나오는데 그냥 Yes한다. 그 다음엔 그림 3과 같은 윈도우가 나타나는데 각각 다음에 맞추어 설정하면 된다.

- profile-name : 해당 세션의 이름으로 사이트별로 구분이 가능한 이름을 사용한다.
(예 : nextel_ftp, dacom_ftp)
- Host Name/Address : 앞에서 언급했던 해당 서버의 접속 주소를 기입한다.
- Host Type : Automatic detect로 두면 된다.
- User ID : 사용자의 계정 ID를 기입한다.
- Password : 사용자의 암호를 기입한다.
- Save Pwd 항목을 체크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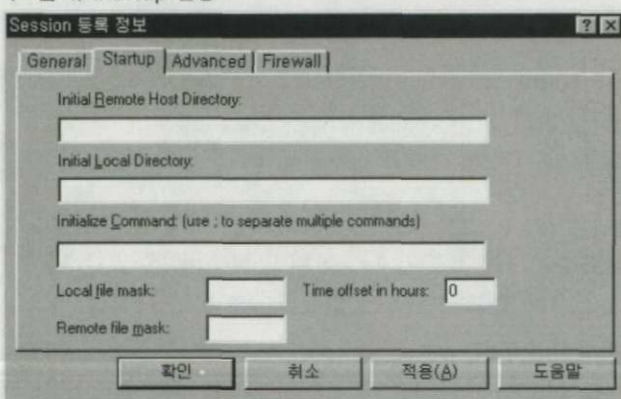
general 항목들이 설정되었으면 이번엔 startup 탭을 누른 뒤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Initial Remote host directory : 접속한 뒤에 특정 디렉토리로 바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 경로를 기입한다. 일반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홈디렉토리로 간다(기입하지 않고 둔다).

<그림 3> general 설정



<그림 4> startup 설정



- Initial Local directory :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PC의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곳인데, 나중에 접속해서 이동해도 되므로 그냥 비워두어도 된다).
- mask 부분은 특정 파일형식 *.pcx, *.html 등만을 보고자 할 때 지정하는 것인데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파일을 보여준다(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Advanced와 Firewall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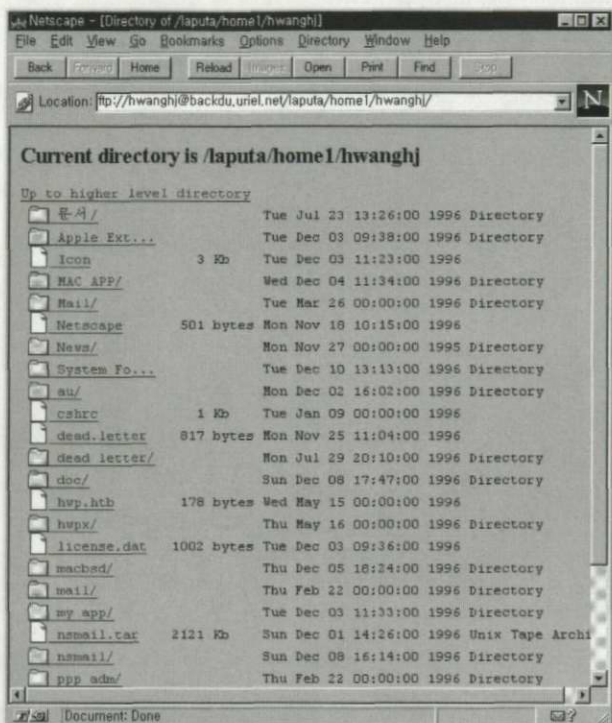
위와 같은 환경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인터넷에 연결 되어야 하므로 PPP 접속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Ws_FTP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접속할 세션을 선택하고(위에서는 nextel_ftp로 지정했음), 커넥트 버튼을 눌러 서버에 접속한다.

사용자 ID와 패스워드가 이상이 없다면 왼쪽에는 사용자 PC의 디렉토리 구조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접속된 서버의 사용자 홈디렉토리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혹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은 사용자가 있다면 Ws_FTP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에러메시지를 참조하도록 한다.

접속이 되었다면, 서버쪽 디렉토리에 public_html, web_home 등의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각 서비스 업체에서 지정하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생성시켜 준다. 디렉토리를 만드는 방법은 Ws_FTP프로그램의 Mkdir 버튼을 누르고 디렉토리명을 기입해주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디렉토리가 준비되었으면 이동한다. 이동방법은 원하는 디렉토리를 두번 클릭하면 된다(파일을 두번 클릭하면 전송된다). 서버쪽의 디렉토리를 이동했으면 이번엔 로컬 PC의 디렉토리를 여러분이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다음에 Ws_FTP프로그램 중간 하단에 있는 Auto항목을 체크하고 파일들을 지정한 다음 -> 화살표를 누르면 된다.

디렉토리를 선택하면 디렉토리가 모두 전송된다. 사용자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public_html 등 지정된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이 시작파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곧 public_html 아래에는 사용자 마음대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파일들의 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림 5〉 넷스케이프로 FTP 접속을 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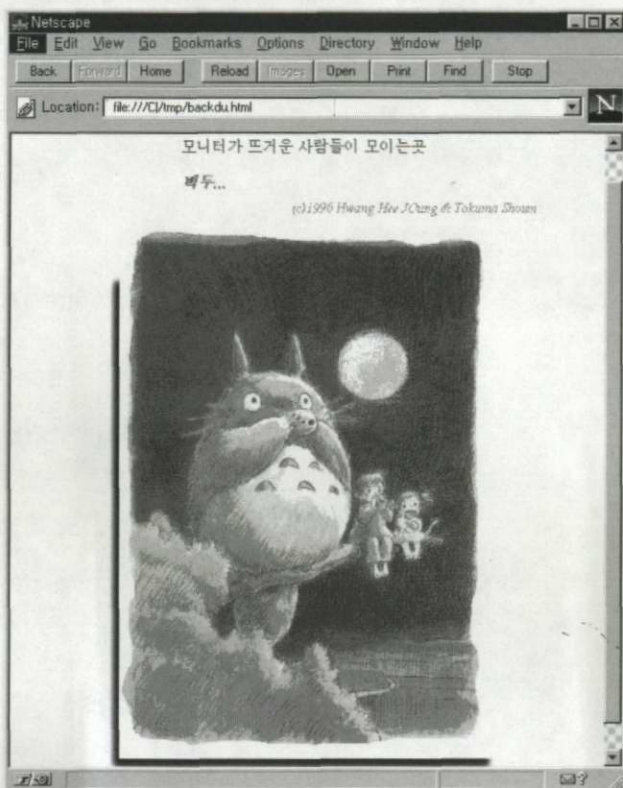
public_html 바깥쪽의 파일들은 인터넷상으로 접속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 사용자가 제작한 홈페이지의 시작파일이 index.html이 아니라면 index.html로 고쳐 준다. 만일 사용자가 만든 파일이 default.html이면 해당 파일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Rename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

■ Netscape를 이용한 전송 방법

Netscape는 2.0 이상부터 FTP기능을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Netscape를 통해 FTP접속을 하려면 Location 부분에 ftp://hwanghj@www.uriel.net과 같이 입력한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묻는 화면이 뜨는데 이곳에 자신의 서버계정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디렉토리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혹 Netscape 3.0 이전의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ftp://hwanghj:xxxxx@www.uriel.net과 같이 입력하는데 xxxx 부분은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WS-FTP를 이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public_html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File 메뉴의 Upload file을 선택하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단 한 번에 하나의 파일만 전송할



〈그림 6〉 인터넷을 통해 읽은 사용자 홈페이지

수 있다. 따라서 디렉토리를 복사하려면 먼저 해당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초보자에게는 다소 복잡한 방법이므로 다음에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준비완료!

이제 여러분의 홈페이지는 인터넷상의 모든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정말 잘 전송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http://www.uriel.net/~개인사용자ID를 브라우저의 location에 입력해 보자.

PC에서 보던 것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파일이름이나 링크를 확인해 가며 수정하도록 하고 변경된 내용은 위에서 설명했던 파일전송 방법들을 통해 다시 전송해 주도록 한다. 변경된 내용을 다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려면 Reload 버튼을 눌러 새로운 페이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변경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한다. 작업중 혹 질문사항이 있으면 hwanghj@backdu.uriel.net 으로 연락주기 바란다.